



*목	도	다 함	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시편121:8)			
명절보다 크신 하나님! 설 명절에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가족들의 현실에 대한 해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찬송	찬송가 93장	다 함	개
	예수는 나의 힘	다 함	개
*기	도	가족중에서	
*말씀나눔	이사야43:18-20	다 함	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다 함	개
*합심기도	가정과 가족들의 기도 제목으로	다 함	개
*주 기 도		다 함	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영국이 낳은 기독교 사상가인 C. S. 루이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을 덤으로 얻게 된다”(C. S. Lewis)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땅에 속하여 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1. 하나님의 명령, 과거에 머무르지 말라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Forget the former things; do not dwell on the past.”(이사야43:18)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머무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과거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잊어버려야 할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의 배경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린 채 살다가 무려 430년 동안이나 비참한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노예 신분으로 압제를 받던 애굽을 떠나 자유를 얻게 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추격을 피해 다다른 곳은 바닷물이 흐르는 홍해였습니다. 뒤에서는 완전무장을 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조금만 더 지체하면 애굽의 군대에 모두 붙잡히게 될 위기가운데서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육지 같은 단단하고 마른 길을 내시고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전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쫓던 애굽의 군대는 바닷물에 모두 빠트리신 후 몰살시키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백성에게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로 인하여 장엄한 승리를 주셨던 과거를 늘 화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기적을 경험했던 과거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교훈

;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위대한 과거라 할지라도 더 영광스런 미래로 압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영광스런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재해석하고 싶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꿈꾸던 미래가 곧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은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2. 하나님의 약속, 새 일을 행하라

하나님은 지난 과거에 머무르지 않아야 할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이사야 43:19)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일이 무엇입니까?

*새 일(new thing) 이전의 일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큰일

이전의 일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큰일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무엇입니까?

(1)새 일1.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Wilderness)는 식물을 전혀 경작할 수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닐 길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길이 없던 광야에 길을 내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약속하셨습니다.

(2)새 일2.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막(Desert)에 강을 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면 옥토로 변화됩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자기백성을 위해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셔서 목마른 자기백성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결코 목록치 않는 상황 속에서 설 명절을 보내는 가족 여러분! 이전의 일을 초월하는 큰일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 하는 영광스런 인생을 펼쳐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illegible]

2022 설 명절&수요예배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0|사|아|43:18-20

18.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행복한 교회, 행복한 인생, 행복한 세상을 추구하는

대한예수교회
경신교회

Gyeong-Shin Presbyterian Church of Gwang-Ju



담임목사 김 판 석